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 전주전시장 080-263-7743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6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156호 1판 (음력 11월 28일) 2016년 1월 7일 목요일

北 "수소탄 핵실험"…한반도 격랑

정부 "국제사회와 함께 상응하는 대가 치르게 할 것" 강력 대응 천명

북, 중국·미국에 사전 통보 안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동 제재 논의

긴급 NSC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일명 지하벙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북한은 6일 수소탄(수소폭탄)을 이용한 핵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관련기사 2, 3, 8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6일 10시(한국시간 10시30분)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대한 각종 핵살인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침략의 원흉 미국과 맞서고 있는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전과 달리 이번 핵실험 사실을 미국과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1~3차 핵실험 때는 직간접적으로 핵실험을 예고했지만,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북한의 이번 수소탄 핵실험 발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양강도 백암군 인근에서 지진이 감지된 지 2시간 만에 나왔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수소탄 시험 진행을 명령하고 올해 1월 3일 최종명령서에 수표(서명)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발표한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6일 오전(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긴급 회동을 한다. 이번 긴급 회동에선 대북 제재와 관련한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에 앞서 외교채널을 가동해 미국 등 주변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을 면담했다.

우리 군(軍)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경계 및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연합사령부는 '워치콘'을 상향 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野, 분당의 뒤끝은 표적공천?

더민주 '탈당파 응징'·安신당 '친노 심판' … 광주·전남 전략공천할 인물 영입 나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표적공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탈당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신당 추진 진영에서는 핵심 친노 의원들 지역구에 강력한 신진 인사들을 맞춤 공천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4면〉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최근 "탈당으로 빈 지역에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정치를 물갈이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탈당에 대한 응징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과 함께 추가 탈당을 막는 정치적 압박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안철수 신당 진영의 문병호 의원은 "친노 인사 지역구에 강력한 후보를 내는 등 특별 공천에 나설 것"이라고 반격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친노 패권주의 심판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표적공천 논란은 광주·전남지역에도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당장, 더민주 내부에서는 탈당한 권은희 의원 지역구(광산 을)에 이용섭 전 의원 전략공천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또, 유성엽 의원 지역구(전북 정읍)에는 2호 영입 인사인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동철 의원 지역구(광산 갑)엔 운동권 출신 인사의 공천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민주 지도부가 탈당 가능성이 높은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투입할 대체 카드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서, 신당 진영에서도 광주·전남지역 친노 주류 진영의 강기정(북 갑), 우윤근(광양·구례), 신정훈(나주·화순) 의원 등을 공략하기 위한 참신한 인재 영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에서의 반 친노 정서를 이슈화시켜 신당 바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패권주의 완장론과 부역론도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더민주와 신당 세력 간의 감정적 충돌은 더 격렬해질 것"이라며 "이는 차기 총선에서의 연대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062)605-1114

알립니다

오피니언 새 필진 … 깊고 다양해집니다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송광룡 '문학들' 대표

최지호 전남대 교수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테마칼럼

정수복 사회학자

이덕일 한가람역사연구소장

이지상 여행작가

김진애 전 국회의원

광일춘추

강맑실 '사계절' 대표

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정영길 원광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수

종교칼럼

연광 증심사 주지

조발그니 목포가톨릭대신부

정세완 농성교당 교무

양홍 서광교회 목사

광주일보가 2016년 필진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로 구성된 필진은 폭넓은 사유와 통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월요광장'에는 인문학 공동체 '인문지행' 대표 심옥숙 박사와 지역 대표 문예지 계간 '문학들'의 송광룡 대표, 전남대 경영학부 최지호 교수가 새로 참여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은 계속 집필합니다.

그동안 매주 금요일 연재됐던 '테마칼럼'은 목요일로 게재일이 변경됐습니다. 인기 여행작가인 이지상씨의 '여행과 삶',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의 '역사의 창', '파리를 생각한다' 저자인 사회학자 정수복 박사의 '응답하는 사회학'이 신설됐습니다. 김진애 전 국회의원의 '이 시대 리더십'은 변함없이 독자들을 만납니다.

전국 5개 지방신문사 공동칼럼인 '광일춘추'는 게재일이 금요일로 변경됩니다. 광주일보가 추천한 사계절출판사 강맑실 대표를 비롯,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정영길 교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소장이 참여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계속 집필합니다.

깊은 울림을 주는 '종교칼럼'은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과 목포가톨릭대학교 조발그니(빈첸시오) 신부, 원불교 농성교당 정세완 교무, 서광교회 양홍 협동목사가 집필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光州日報